

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Quality of Life in Korea
: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Ordinary-Income of the Households

김선아*·박성민**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실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선행요인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던 경제적 요소인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과 같은 심리 자본, 사회 자본 등 비경제적 요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이들 간의 중요성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뿐만 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도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에 접근하였다. 또한, 삶의 질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시간차원을 3개년도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042).

* 金善娥(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공공조직의 사회자본이 지식관리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관심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조직행태, 리더십, PSM, WLB 등이며 최근의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Employees: Evidence from US federal Agencies"(2014), "'일과 삶 균형' 정책과 정책 부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비교를 중심으로"(2013), "직업선택동기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공·사 비교 연구: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seona1203@skku.edu)

** 朴盛民(교신저자):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Antecedents, Mediators, and Consequences of Leadership, Motivation, Commitment, and Managerial Reform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미국 네바다 주립대(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그린스핀 행정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후 현재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인사개혁, 조직행태, 리더십 등이며, 최근의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Determinants of Positive Job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Asian Work Context: Evidence from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2013), "Of Alternative Waves and Shifting Shores: The Configuration of Reform Values in the U.S. Federal Bureaucracy"(2012), "Toward the Trusted Public Organization: Untangling the Leadership, Motivation, and Trust Relationship in U.S. Federal Agencies"(2011)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저서로는 "한국인사행정론"(2014), "Public Management: A Case Handbook"(2014), "Public Management: A Research Handbook"(2013) 등이 있다. (sm28386@skku.edu)

초 록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등에서 저소득층 보다 일반 가구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정책학적 시각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삶의 질, 사회 자본 이론, 물리적 환경, 심리 자본, 사회 자본

I.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와 같은 양적 측면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 만족 수준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GDP 규모 14위, 무역 규모 9위에 걸맞게 국제 경제 및 국제 사회에 있어 선진국 반열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양적 성적표와 달리 질적 성적표를 살펴보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10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소식, 대한민국 성인 8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 삶의 질 등 질적 지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삶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로 고려되면서 다양한 국제기관, 민간 연구 기관에서 자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불일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매년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 수명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별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한 '인간 개발 지수(HDI)'를 발표한다. 2014년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87개국 중 15위로 나타나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엔(UN)의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56개국 중 41위로 나타났으며, 갤럽(Gallup)과 헬스웨이(Healthways)의 '세계 웰빙 지수(Global Well-Being Index)' 공동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35개국 중 75위로 나타나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재,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파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전통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따라, 개인의 소득수준, 생활수준 등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복도 높아질 것이라 명제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을 달성한 국가에서는 소득의 증가분과 비례하여 행복이 증가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Easterlin, 1974; Kahneman & Deaton, 2010). 이러한 결과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경제 환경의 함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의 달성이 가능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실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선행요인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던 경제적 요소인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과 같은 심리 자본, 사회 자본 등 비경제적 요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이들 간의 중요성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뿐만 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도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느끼는 만족도를 물리적·정서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에 접근함으로써 기존에 강조되고 있던 객관적·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주관적·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삶의 질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시간차원을 3개년도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첫째,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반 가구와 저소득 층 가구의 삶의 질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경제적 환경이 여전히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넷째, 심리 자본과 사회 자본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섯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들의 물리적·정서적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선행 요인을 규명하여 행정학·정책학적 시각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제 2장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과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제 4장에서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경제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학문 분야, 연구 목적, 분석 수준 등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다르게 제시 되고 있어 삶의 질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에 접근 하는 상이한 학문적 시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 접근하는 학문적 시각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크게 네 가지 시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명철·최상옥, 2012).

우선, 경제학적 시각은 GDP와 GNP와 같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전통적 측정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삶의 질에 접근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삶의 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개발 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사회학적 시각은 사회 체계 및 사회 구조와 삶의 질 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주목한다. 이에 사회학적 시각은 삶의 질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또한, 심리학적 시각은 행복감, 만족도, 안녕감 등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심리학적 시각은 삶의 질 개념을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 행복도 등을 총합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적 시각은 삶의 질 개념을 정부 활동 및 정부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이해한다. 특히, 행정학적 접근방식은 사회학적 접근 방식과 심리학적 접근 방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삶의 질 개념에 접근한다. 즉, 행정학적 접근방식에서의 삶의 질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에 범죄율 감소, 출산율 증가 등의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과, 의료·주거·복지·치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네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을 종합해 보면, 경제학적 시각과 사회학적 시각은 삶의 질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 차원으로 접근했다면, 심리학적 시각은 주관적 차원으로, 행정학적 시각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일 수 있다. 객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하는 입장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으로서 삶의 질을 이해하며 경제 수준, 문화 수준, 복지 수준 등 물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김도엽, 2001). 반면, 주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에 접근하는 입장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삶과의 부합 정도로서 삶의 질을 이해하며 개인의 행복, 만족감, 삶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 도덕성 등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Stock & Okun

& Benin, 1986; Coulter, 1990; 김미령, 2012).

특히, 제1의 자본인 물질 자본과, 제2의 자본인 인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었던 과거의 사회에서는 삶의 질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객관적·물리적 측면이 강조 되었지만, 제3의 자본인 사회 자본과 제4의 자본인 심리자본에 기초한 정서적 가치가 보다 중시되는 현재 사회에서는 삶의 질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관적·심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같은 절대적 개념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환경, 상태, 경험에 대한 인지된 만족도 등과 같은 상대적 개념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cDowell & Newell(1987)은 “삶의 질이란 물리적 상황의 적절성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McDowell & Newell, 1987; 205).”라고 정의하였고, Kahneman & Deaton(2010)은 삶의 질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념화 하고, 이를 감정적 삶의 질(Emotional Well-Being)과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감정적 삶의 질의 경우 쾌락적 삶의 질, 경험적 행복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즐거움, 매력감,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애착심 등을 느끼는 빈도로 평가된다. 반면 삶에 대한 평가의 경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느끼는 만족도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삶의 질은 인간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물질적 욕구 충족 정도를 의미하며, 정서적 삶의 질은 인간관계, 여가 생활 등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또한 총체적 삶의 질은 물리적 삶의 질과 정서적 삶의 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삶의 질이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면서 다양한 학분 분야에서 핵심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삶의 질 결정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삶의 질 결정 요인 규명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표 1> 과 같이 다양한 연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김규수·고경미·김경숙(2014)는 한국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동료관계,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현국·이민아(2014)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 성과 인식과

주관적 행복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전상남·신학진(2014)은 한국 기초자치단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인지적 기능성,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고명철(2013)은 미국 텔러웨어주 도버 시민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도시환경이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정부성과를 매개로 지역사회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미림·박춘숙(2013)은 한국 대전광역시·충청남도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마음건강, 성별, 용돈 수준, 학교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인숙(2013)은 한국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기도 거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강소랑·문상호(2012)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이 성공적 노화를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김미령(2012)은 한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Fisher LSD를 통해 신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환경적 요소, 노후 준비 요소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김혜령(2012)은 한국 16개 광역자치단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평가 건강상태, 증상경험, 가족기능, 가정환경, 사회참여, 용돈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한석태(2008)는 한국 충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건강차원, 경제차원, 사회차원, 심리차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균·김동균(2007)은 한국 성남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건강한 생활여건, 경제적 활동여건, 교육·문화 활동 여건, 공공서비스 수준, 보건·위생서비스, 자연 환경 및 기타 생활여건이 총체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 결정 요인 규명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생활 수준, 주거 환경, 문화 환경, 보건·위생 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자아 탄력성, 자아 통합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표 1〉 삶의 질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분석모형			분석대상	분석방법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김규수 고경미 김경숙 (2014)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동료관계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삶의 질	한국 유아교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연구자	분석모형			분석대상	분석방법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이현국 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 인식		주관적 행복도	서울시민	회귀분석
전상남 신학진 (2014)	사회적 지지	신체적·인지적 기능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한국 기초자치단체 65세 이상 노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고명철 (2013)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지역사회 생활의 질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시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이미림 박춘숙 (2013)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마음건강 성별 용돈수준 학교만족	-	삶의 질	한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4년제 대학생	회귀분석
이인숙 (2013)	사회자본	자아탄력성	삶의 질	한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한부모 가정	회귀분석
강소량 문상호 (2012)	사회자본 (가족관계망)	성공적 노화	삶의 질	한국 65세 이상 노인 (고령화연구패널)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김미령 (2012)	신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환경적 요소 노후준비 요소	-	삶의 질	한국 65세 이상 노인 (국민노후보장패널)	Fisher LSD
김혜령 (2012)	자기평가 건강상태 증상경험 가족기능 가정환경 사회참여 용돈	자이통합감	삶의 질	한국 16개 광역자치단체 65세 이상 노인	회귀분석
한석태 (2008)	건강차원 경제차원 사회차원 심리차원	-	삶의 질	한국 충주시 65세 이상 노인	회귀분석

연구자	분석모형			분석대상	분석방법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이영균 김동균 (2007)	건강한 생활여건 경제적 활동여건 교육·문화 활동여건 공공서비스 수준 보건·위생서비스 자연환경 및 기타 생활여건	-	총체적 삶의 질	한국 성남시 주민	회귀분석

3. 본 연구의 차별성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우선, 연구 대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연령층, 특정 지역 거주 시민, 혹은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제활동 인구로 확대하였으며, 물리적·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일반 가구 구성원과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 가구의 경우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층 구분과 달리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중산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150%)이 실제 우리나라 체감 중산층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의미 있는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 가구만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요인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김미령(2012), 한석태(2008)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질의 선행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혹은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자본 요소 중 한 가지 특성만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결과 요인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질 개념에 접근하는데 있어 물질적 속성, 혹은 심리적 속성 등 하나의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연구 모형의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선행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특성, 물리적 환경, 비경제적 요소인 심리 자본과 사회 자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삶의 질 개념은 물리적·정서적·총체적 삶의 질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단일 시점에서 삶의 질 선행 요인을 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 차원을 3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종단면적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3가지 차별적 접근방식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실무적·정책적 함의 측면에서도 더 많은 연구적 가치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은 선행 요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물리적 환경, 심리 자본, 사회 자본 등과 결과 요인인 삶의 질 등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선행요인의 경우 1단계 독립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종교 등 5가지 요소로 구성 하였고, 2단계 독립변수로서 경제적 특성인 물리적 환경 요인은 근로 상태, 건강 상태, 주거 수준, 생활 수준 등 4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 독립변수는 비경제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는데, 3단계 독립변수인 심리 자본은 우울감, 자아존중감 등 2가지 요소로 구성하였고 4단계 독립변수인 사회 자본은 신뢰와 상호호혜성 등 2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결과 변수인 삶의 질은 소득, 직업,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물리적 삶의 질과, 가족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여가 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정서적 삶의 질, 이들의 전반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총체적 삶의 질 등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모형을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각각 적용하여 영역별 변수 간 차이성 검증과 함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영향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 결정요인 규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삶의 질 결정요인을 특징에 따라 유형화 해 볼 수 있었는데,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물리적 환경, 심리 자본, 사회 자본 등 4가지 요인을 핵심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Hachey & Merier, 1993; Lehman, 1983).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 동기, 만족 등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ark

& Raieny, 2008; Park, 2010). 다만, 각 요소별 방향성은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물리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서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총체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물리적 환경과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저소득층과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소득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특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연구 대상의 구분과 더불어 근로 상태, 건강 상태, 주거 수준, 생활 수준 등 자신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지된 평가 수준을 주요 선행 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간의 욕구를 설명한 Maslow(1954)의 욕구단계이론과 Alderfer(1972)의 ERG 이론은 물리적 환경이 상위수준의 욕구,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저차 욕구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Maslow(1954)는 욕구의 위계성을 강조하면서 하위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보다 고차원의 상위수준의 욕구로의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에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삶의 질’ 향상은 물질적 환경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2-1: 물리적 환경은 물리적 삶에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물리적 환경은 정서적 삶에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물리적 환경은 심리적 삶에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리 자본과 삶의 질

심리 자본은 Seligman에 의해 강조된 개념으로서 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옳은 것들, 장점에 관심을 갖고 이를 관리해 나간다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eligman, 1999). 특히 Seligman(2002)은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그러한 시각이 바로 심리 자본임을 지적하였다(Seligman, 2002). 이에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몰입, 목표 의식,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Luthans(2001)는 “심리 자본은 성과와

성장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이다.”라고 정의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심리자본은 타고난 성격상의 특성이 아닌, 관리가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상태적인 특성이다.”라고 정의하였다(Lythans et al., 2002; Luthans & Youssef, 2007). 즉, 심리 자본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재화된 역량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 자본은 부정적 심리 자본으로서 우울감과 긍정적 심리 자본으로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다. 우울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로 이해되며(Judd et al., 1997)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동력을 잃게 만듦으로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y-Woan et al., 2006; 이미림·박춘숙, 2013). 반면, 자아존중감 개념은 긍정적 심리 자본으로서 자신감, 자부심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결정 된다(Hewitt, 1998). 특히 긍정적 감정 상태인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에 있어 활력을 불어 넣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ddox & Douglas, 1974; George & Bearon, 1980; 김혜령, 2012).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심리 자본은 물리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a: 우울감은 물리적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b: 자아존중감은 물리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심리 자본은 정서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a: 우울감은 정서적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b: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심리 자본은 총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a: 우울감은 총체적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b: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 자본과 삶의 질

사회 자본은 인간관계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적자본과 물질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새로운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Coleman, 1988; 1990). 사회자본은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다중개념으로서 구조적·관계적·인지적 차원을 포함한다(Coleman, 1988; Nahapiet & Ghoshal, 1998). 사회자본의 구조적 차원은 개인과 개인 혹은 조직과 조직 간의 연결망 또는 네트워크 형태를 의미하며, 관계적 차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구축된 결과물로서

신뢰, 상호 호혜성 등을 의미한다(Nahapiet & Ghoshal(1998). 마지막 인지적 차원은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비전 및 규범의 형성을 의미한다(Coleman, 1990; Putnam, 1993; Nahapiet & Ghoshal, 1998).

특히, Leung et al.(2010)은 Coleman(1988)의 연구에 기초하여 사회 자본을 신뢰, 정보 교환 채널, 규범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행복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는데 사회 신뢰와 대인 신뢰가 행복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많은 연구들이 사회자본의 관계적 차원인 신뢰가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Ram, 2009; Leung et al., 2010; Han et al. 2013, Helliwell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신뢰, 상호호혜성 등을 선행 변수로 선정하였다. 신뢰는 대인 신뢰, 조직 신뢰 등 분석 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는 대인 신뢰를 의미하며, 이는 정서적 요소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반면 상호호혜성은 합리적 요소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현재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줄 경우 미래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 도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내에서 사람들을 끈끈하게 엮어주고, 이어주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Putnam, 1993; 1995; Fukuyama, 1995).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은 사회 내에서 개인 간 협력과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Putnam 1993; 1995).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사회 자본은 물리적 삶에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사회 자본은 정서적 삶에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사회 자본은 심리적 삶에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작화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행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등 각각 1문항 씩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의 경우 근로 상태, 건강 상태 각각 1문항, 주거 수준 4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 자본의 경우 우울감 7문항,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 자본의 경우 신뢰 1문항, 상호호혜성 2문항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결과 요인인 삶의 질의 경우 물리적 삶의 질 4문항, 정서적 삶의 질 3문항, 총체적 삶의 질 1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항목 및 척도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구성개념별 측정항목

구성개념		문항	척도		
독립 변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¹⁾	① 남성 / 여성	명목척도	
		연령	① 태어난 연도	비율척도	
		교육 수준	① 최종 학력	명목척도	
		배우자 유무 ²⁾	①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명목척도	
		종교 유무 ³⁾	① 종교 있음 / 종교 없음	명목척도	
	물리적 환경	근로상태	① 근로시간형태(전일제 / 시간제)	명목척도	
		건강상태	① 지난 1년 기준 건강상태	서열척도	
		주거수준 ⁴⁾	①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서열척도	
		생활수준	① 지난 1년간 귀하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서열척도	
	심리 자본	우울감	① 상당히 우울했다. ②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③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④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⑤ 마음이 슬펐다. ⑥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⑦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서열척도	
			자아 존중감	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④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서열척도
		사회 자본	신뢰 ⁵⁾	①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목척도
	상호 호혜성		①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예: 헌혈 등)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②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서열척도	
	종속 변수	삶의 질	물리적 삶의 질	① 건강 만족도 ② 가족의 수입 만족도 ③ 주거 환경 만족도 ④ 직업 만족도	서열척도
			정서적 삶의 질	① 가족 관계 만족도 ②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③ 여가 생활 만족도	서열척도
총체적 삶의 질			①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서열척도	

1) 성별: 0=남성, 1=여성

2) 배우자 유무: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3) 종교 유무: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4) 주거수준: 원자료에서는 4개 문항 모두 명목척도(예: 1, 아니오: 0)로 측정되었으나 이를 서열척도(4점)로 재코딩하여 활용함

5) 신뢰: 0=신뢰하지 않는다, 1=신뢰한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차 자료(Primary Data)로써 ‘한국복지패널(KoWePS)’ 제1차(2006년), 제4차(2009년), 제7차(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소득 계층별 생활 실태 등을 폭넓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1년 단위로 수집되는 자료이다. 실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1차년도인 2006년의 경우 총 7,765명(일반 가구: 5,313명, 저소득층 가구: 2,452명), 2차년도인 2009년의 경우 총 7,116명(일반 가구: 5,488명, 저소득층 가구: 1,628명), 3차년도인 2012년의 경우 총 8,420명(일반 가구: 6,694명, 저소득층 가구: 1,72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결측값은 EM으로 대체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 제4차, 제7차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3단계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일반 가구 구성원과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들의 삶의 질 관련 요인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반 가구 구성원과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설검증을 위한 전 단계로서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기의 과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질 선행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IV. 실증 분석

1. 현황 및 인식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2006년, 2009년, 2012년 주요 변수에 대한 인식 및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차이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우선, 심리 자본인 우울감, 사회 자본인 신뢰를 제외하고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저소득층 보다 일반가구의 인식 및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중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상태의 경우 일반가구는 3개년에 걸쳐 모두 3점 후반으로 보통(3점)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3개년에 걸쳐 모두 3점 초반의 수준으로 일반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주거 수준의 경우 2006년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이 3점 미만이었으나, 2009년, 2012년은 일반 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 수준의 경우 2006년, 2009년에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모두 보통(3점) 이하로 평가했다. 2012년의 경우 일반 가구는 보통(3점) 수준 이상의 생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보통(3점) 이하의 생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 자본의 경우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저소득층의 우울감 수준이 일반 가구의 우울감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 존중감의 경우 3개년 모두 일반 가구의 자아존중감이 저소득층 가구의 자아존중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자본의 경우 신뢰¹⁾ 수준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호호혜성의 경우 3개년 모두 일반 가구의 상호호혜성이 저소득층 가구의 상호호혜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의 경우 물리적, 정서적, 총합적 삶의 질 모두 3개년에 걸쳐 일반 가구의 삶의 질이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삶의 질 격차보다 물리적 삶의 질 격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신뢰는 더미 변수로 재코딩되었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 제외됨

〈표 3〉 주요 변수의 인식 및 조직 별 차이 검증

연도	구분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t-test		
			Mean	Std.D	Mean	Std.D	t	Sig	
2006년	선행 요인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3.92	0.9253	3.09	1.1405	31.431***	0.000
			주거수준	3.30	1.0251	2.97	1.2094	11.634***	0.000
			생활수준	2.69	0.6430	2.26	0.7600	24.412***	0.000
		심리 자본	우울감	1.40	1.0765	1.57	0.9819	-6.665***	0.000
			자아존중감	2.99	0.9841	2.74	0.9105	10.977***	0.000
		사회 자본	신뢰	0.44	0.4968	0.44	0.4972	-	-
	상호호혜성		3.79	1.0378	3.47	1.0441	9.150***	0.000	
	결과 요인	물리적 삶의 질		3.36	0.9299	2.84	0.9457	22.646***	0.000
		정서적 삶의 질		3.60	0.8670	3.30	0.8700	14.456***	0.000
총합적 삶의 질		3.47	1.0520	3.02	0.1026	17.890***	0.000		
2009년	선행 요인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3.85	0.8616	3.14	0.9836	26.291***	0.000
			주거수준	3.52	0.8922	3.37	0.9727	5.211***	0.000
			생활수준	2.71	0.5620	2.28	0.6580	23.957***	0.000
		심리 자본	우울감	1.47	1.3394	1.59	1.1500	-3.173**	0.002
			자아존중감	3.11	1.1438	2.79	1.0506	10.216***	0.000
		사회 자본	신뢰	0.53	0.4987	0.51	0.5000	-	-
	상호호혜성		3.65	0.7690	3.43	0.8449	9.111***	0.000	
	결과 요인	물리적 삶의 질		3.28	0.5892	2.84	0.6108	25.704***	0.000
		정서적 삶의 질		3.58	0.5563	3.33	0.6224	14.790***	0.000
총합적 삶의 질		3.46	0.7680	3.10	0.0838	15.488***	0.000		
2012년	선행 요인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3.89	0.8049	3.12	0.9175	31.853***	0.000
			주거수준	3.70	0.7226	3.49	0.9489	8.736***	0.000
			생활수준	3.49	0.5670	2.18	0.6760	27.889***	0.000
		심리 자본	우울감	1.54	0.1701	1.58	1.3299	-1.107	0.269
			자아존중감	3.22	1.4015	2.79	1.2074	12.860***	0.000
		사회 자본	신뢰	0.48	0.4997	0.46	0.4985	-	-
	상호호혜성		3.50	0.6429	3.25	0.7415	12.873***	0.000	
	결과 요인	물리적 삶의 질		3.34	0.5314	2.91	0.5442	29.821***	0.000
		정서적 삶의 질		3.64	0.4601	3.42	0.5155	17.313***	0.000
총합적 삶의 질		3.56	0.6110	3.22	0.6760	20.438***	0.000		

*p<0.05, **p<0.01, ***p<0.001

2. 가설 검증

내적 일관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질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2006년, 2009년, 2012년 등 3개년도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등 5개 요소가 투입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물리적 환경 변수인 근로 상태, 건강 상태, 주거 수준, 생활 수준 등 4개 요소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심리 자본인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등 2개 요소가 투입되었으며, 4단계에서는 사회 자본인 신뢰와 상호 호혜성 등 2개 요소가 투입되었다. 3개년도, 2개 집단 분석 모두에서 선행 변수가 1단계씩 투입될 때마다 설명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정서적·총체적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삶의 질

(1) 2006년

일반 가구의 2006년 최종 모형(model 4)은 62.0%(adj $R^2=0.62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23$, $p<0.05$),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근로상태($\beta=0.022$, $p<0.05$), 건강상태($\beta=0.150$, $p<0.001$), 주거 수준($\beta=0.084$, $p<0.001$), 생활 수준($\beta=0.273$,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우울감($\beta=0.252$, $p<0.001$)과 자아 존중감($\beta=0.362$,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상호호혜성($\beta=0.154$,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06년 최종 모형(model 4)은 64.7%(adj $R^2=0.64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0.027$, $p<0.05$), 교육수준($\beta=0.041$, $p<0.01$),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208$, $p<0.001$), 주거 수준($\beta=0.168$, $p<0.001$), 생활 수준($\beta=0.307$,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우울감($\beta=0.216$, $p<0.001$)과 자아 존중감($\beta=0.428$,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상호호혜성($\beta=0.100$,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2009년

일반 가구의 2009년 최종 모형(model 4)은 37.0%(adj $R^2=0.37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66$, $p<0.001$),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근로상태($\beta=0.050$, $p<0.05$), 건강상태($\beta=0.178$, $p<0.001$), 주거 수준($\beta=0.120$, $p<0.001$), 생활 수준($\beta=0.325$,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439$,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67$, $p<0.001$), 상호호혜성($\beta=0.051$,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044$,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09년 최종 모형(model 4)은 42.1%(adj $R^2=0.42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59$, $p<0.05$),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218$, $p<0.001$), 주거 수준($\beta=0.126$, $p<0.001$), 생활 수준($\beta=0.339$,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283$,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139$, $p<0.001$), 배우자 유무($\beta=-0.040$, $p<0.05$),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404$,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2012년

일반 가구의 2012년 최종 모형(model 4)은 33.3%(adj $R^2=0.33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90$, $p<0.001$),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근로상태($\beta=0.024$, $p<0.05$), 건강상태($\beta=0.180$, $p<0.001$), 주거 수준($\beta=0.127$, $p<0.001$), 생활 수준($\beta=0.317$,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525$,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68$, $p<0.001$), 상호호혜성($\beta=0.041$,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096$, $p<0.001$), 배우자 유무($\beta=-0.027$, $p<0.01$),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550$,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12년 최종 모형(model 4)은 38.9%(adj $R^2=0.38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330$, $p<0.001$), 주거 수준($\beta=0.113$, $p<0.001$), 생활 수준($\beta=0.324$,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406$,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91$,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148$, $p<0.001$), 배우자 유무($\beta=-0.051$, $p<0.05$),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286$,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2009년 물리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저소득층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t									
Step 1																								
성별	0.025	0.019	1.400	0.017	0.015	1.227	0.009	0.007	0.655	0.003	0.249	0.033	0.027	1.019	0.020	0.016	0.726	0.002	0.002	0.098	0.007	0.005	0.263	
연령	0.001	0.080	1.725	-0.002	-0.039	-2.372*	-0.001	-0.027	-1.731	-0.001	-1.619	-0.004	-0.089	-2.559*	-0.006	-0.140	-4.415***	-0.006	-0.144	-4.917***	-0.005	-0.139	-4.722***	
교육 수준	0.100	0.243	14.817***	0.047	0.113	7.714***	0.032	0.078	5.590***	0.027	4.740***	0.078	0.175	4.972***	0.042	0.095	3.171**	0.027	0.060	2.150*	0.026	0.059	2.131*	
배우자 유무	0.052	0.089	2.737**	0.010	0.007	0.393	-0.018	-0.014	-1.165	-0.022	-1.377	0.071	0.055	2.145*	-0.012	-0.010	-0.440	-0.049	-0.088	-1.901	-0.051	-0.040	-1.980*	
종교	0.013	0.011	0.845	0.023	0.020	1.685	0.007	0.006	0.558	0.004	0.340	0.055	0.045	1.798	0.061	0.050	2.394*	0.025	0.021	1.509	0.080	0.025	1.273	
Step 2																								
근로 상태				0.050	0.040	3.185**		0.048	0.038	3.239*		0.050	0.041	3.440*		-0.005	-0.003	-0.146		0.000	0.000	0.001	0.001	0.045
건강 상태				0.153	0.224	17.577***		0.123	0.180	14.886***		0.122	0.178	14.765***		0.183	0.295	12.072***		0.134	0.216	0.155	0.218	9.407***
주거 수준				0.080	0.120	10.345***		0.078	0.119	10.797**		0.079	0.120	10.974***		0.087	0.139	6.650***		0.082	0.131	0.079	0.126	6.510**
경제 수준				0.397	0.379	32.248***		0.341	0.325	28.758***		0.341	0.325	28.847***		0.386	0.416	19.577***		0.315	0.340	0.314	0.339	16.828***
Step 3																								
우울감																								
자이존중감																								
Step 4																								
신뢰																								
상호호혜성																								
통계량	R ² =0.068, adjR ² =0.067, F=80.027***		R ² =0.288, adjR ² =0.287, F=246.430***		R ² =0.365, adjR ² =0.363, F=285.558***		R ² =0.372, adjR ² =0.370, F=249.371***		R ² =0.026, adjR ² =0.023, F=8.759***		R ² =0.321, adjR ² =0.317, F=85.048***		R ² =0.424, adjR ² =0.420, F=107.959***		R ² =0.425, adjR ² =0.421, F=91.877***									

*p<0.05, **p<0.01, ***p<0.001

〈표 6〉 2012년 물리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저소득층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t								
Step 1																							
성별	0.008	0.008	-0.002	-0.156	-0.006	-0.588	-0.010	-0.009	-0.869	-0.003	-0.002	-0.094	-0.007	-0.007	-0.305	-0.016	-0.014	-0.692	-0.019	-0.018	-0.863		
연령	-1.20E-5	0.000	-0.020	-0.086	-5.699**	-0.094	-0.090	-6.206***	-0.003	-0.065	-1.902	-0.005	-0.142	-4.945***	-0.006	-0.157	-5.621***	-0.005	-0.148	-5.312**			
교육 수준	0.096	0.261	17.090***	0.047	9.233***	0.098	7.440***	0.033	0.080	6.770***	0.040	0.099	2.953**	0.000	0.090	-0.009	-0.021	-0.786	-0.009	-0.023	-0.840		
배우자 유무	0.059	0.050	3.886**	0.002	0.140	-0.033	-2.530*	-0.034	-0.028	-2.611**	0.079	0.070	2.790**	-0.053	-2.187*	-0.069	-0.061	-2.979**	-0.069	-0.061	-2.961**		
종교	0.029	0.028	2.291*	0.029	0.027	2.593**	0.008	0.007	0.720	0.061	0.056	2.302*	0.054	0.050	2.465*	0.035	0.032	1.669	0.030	0.027	1.406		
Step 2																							
근로 상태			0.036	0.032	2.835**		0.026	0.024	2.179*				0.013	0.011	0.500								
건강 상태			0.161	0.244	20.982***		0.124	0.188	16.508***				0.232	0.391	17.784***								
주거 수준			0.093	0.127	12.033***		0.093	0.127	12.601***				0.073	0.127	6.334***								
경제 수준			0.320	0.362	33.694***		0.300	0.319	30.502***				0.307	0.382	18.287***								
Step 3																							
우울감					-0.185	-0.593	-24.564***		-0.172	-0.550	-22.295***												
자이존중감					0.210	0.553	22.760***		0.199	0.525	21.332***												
Step 4																							
신뢰							0.073	0.068	6.026***														
상호호혜성							0.034	0.041	3.950***														
통계량	R ² =0.100, adjR ² =0.098, F=81.086***		R ² =0.233, adjR ² =0.231, F=303.011***		R ² =0.326, adjR ² =0.324, F=325.192***		R ² =0.335, adjR ² =0.333, F=282.969***		R ² =0.015, adjR ² =0.012, F=5.328***		R ² =0.330, adjR ² =0.327, F=94.122***		R ² =0.386, adjR ² =0.382, F=97.891***		R ² =0.394, adjR ² =0.389, F=85.574***								

*p<0.05, **p<0.01, ***p<0.001

2) 정서적 삶의 질

(1) 2006년

일반 가구의 2006년 최종 모형(model 4)은 57.3%(adj R²=0.57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49$, $p<0.001$), 배우자 유무($\beta=0.033$, $p<0.01$), 종교 유무($\beta=0.021$, $p<0.05$)가,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근로상태($\beta=0.021$, $p<0.05$), 건강상태($\beta=0.040$, $p<0.001$), 생활 수준($\beta=0.161$,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우울감($\beta=0.246$, $p<0.001$)과 자아 존중감($\beta=0.387$,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상호호혜성($\beta=0.184$,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06년 최종 모형(model 4)은 52.1%(adj R²=0.52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40$, $p<0.05$), 배우자 유무($\beta=0.064$, $p<0.001$),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36$, $p<0.05$), 주거 수준($\beta=0.076$, $p<0.001$), 생활 수준($\beta=0.200$,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우울감($\beta=0.174$, $p<0.001$)과 자아 존중감($\beta=0.479$,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상호호혜성($\beta=0.112$,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환경 변수 중 근로 상태($\beta=-0.038$, $p<0.05$)가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2) 2009년

일반 가구의 2009년 최종 모형(model 4)은 23.0%(adj R²=0.23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66$, $p<0.001$), 종교 유무($\beta=0.003$, $p<0.001$)가,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생활 수준($\beta=0.186$,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538$,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109$, $p<0.001$), 상호호혜성($\beta=0.066$,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498$,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09년 최종 모형(model 4)은 26.4%(adj R²=0.26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120$, $p<0.001$),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생활 수준($\beta=0.207$,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538$,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142$, $p<0.001$)이, 물리적 환경 변수 중 근로 상태($\beta=-0.098$, $p<0.001$),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455$,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3) 2012년

일반 가구의 2012년 최종 모형(model 4)은 23.1%(adj $R^2=0.23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77$, $p<0.001$), 종교 유무($\beta=0.029$, $p<0.01$)가,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36$, $p<0.01$), 주거 수준($\beta=0.052$, $p<0.001$), 생활 수준($\beta=0.233$,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642$,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57$, $p<0.001$), 상호호혜성($\beta=0.076$,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071$, $p<0.001$)가,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626$, $p<0.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12년 최종 모형(model 4)은 29.0%(adj $R^2=0.29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51$, $p<0.05$), 주거 수준($\beta=0.046$, $p<0.05$), 생활 수준($\beta=0.280$,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462$,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137$, $p<0.001$), 상호 호혜성($\beta=0.058$, $p<0.01$)이 정서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0.055$, $p<0.001$), 배우자 유무($\beta=-0.174$, $p<0.001$)가,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335$, $p<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7〉 2006년 정서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저소득층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t	
Step 1																
성별	0.067	0.087	0.070	0.040	0.041	0.023	2.385*	1.187	0.141	0.081	3.827***	0.059	0.034	0.044	0.025	1.652
연령	0.001	0.011	-0.001	-0.019	0.000	0.992	-0.148	-0.370	0.003	0.059	2.121*	-7.21E-5	-0.001	-0.001	-0.012	-0.590
교육 수준	0.090	0.145	0.054	0.087	0.036	0.057	4.980***	4.319***	0.042	0.069	2.451*	0.026	0.046	0.024	0.040	1.978*
배우자 유무	0.072	0.086	0.042	0.021	0.070	0.035	3.488***	3.309**	0.234	0.120	5.869***	0.125	0.064	0.124	0.064	4.294***
종교	0.061	0.035	0.058	0.034	0.023	2.497*	2.254*	2.254*	0.067	0.038	1.919	0.027	0.016	0.023	0.013	0.946
Step 2																
근로 상태			0.057	0.031	0.043	0.024	2.357*	2.153*				-0.063	-0.034	-0.069	-0.038	-2.387*
건강 상태			0.066	0.071	0.046	0.049	4.707***	3.951***				0.031	0.040	0.027	0.036	2.108*
주거 수준			-0.011	-0.014	0.006	0.007	0.755	1.073				0.052	0.073	0.054	0.076	5.233***
생활 수준			0.286	0.212	0.238	0.162	16.786***	17.152***				0.224	0.195	0.229	0.200	12.873***
Step 3																
우울감					0.243	0.302	23.079***	18.153***				0.178	0.201	0.154	0.174	9.317***
자이존중감					0.397	0.451	33.982***	28.511***				0.496	0.519	0.457	0.479	25.315***
Step 4																
신뢰								1.009								0.883
상호호혜성								16.058***								6.417***
통계량	R ² =0.027, adjR ² =0.027, F=29.926***	R ² =0.077, adjR ² =0.075, F=48.882***	R ² =0.553, adjR ² =0.552, F=596.507***	R ² =0.574, adjR ² =0.573, F=550.334***	R ² =0.041, adjR ² =0.039, F=20.671***	R ² =0.114, adjR ² =0.110, F=34.819***	R ² =0.515, adjR ² =0.513, F=233.531***	R ² =0.523, adjR ² =0.521, F=206.016***								

*p<0.05, **p<0.01, ***p<0.001

〈표 8〉 2009년 정서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저소득층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t										
Step 1																									
성별	0.022	0.019	1.412		0.025	0.022	1.641	0.013	0.011	0.914	0.006	0.006	0.450	-0.011	-0.009	-0.327	-0.005	-0.004	-0.147	-0.024	-0.019	-0.818	-0.022	-0.018	-0.764
연령	-0.001	-0.020	-1.124		-0.002	-0.040	-2.204**	-0.001	-0.029	-1.665	-0.001	-0.025	-1.484	-0.008	-0.192	-5.519***	-0.006	-0.142	-3.951***	-0.006	-0.145	-4.389***	-0.006	-0.142	-4.284***
교육 수준	0.075	0.192	11.548***		0.049	0.127	7.694***	0.083	0.084	5.478***	0.026	0.066	4.263***	0.076	0.168	4.799***	0.074	0.163	4.823***	0.056	0.124	3.952***	0.054	0.120	3.829***
배우자 유무	0.050	0.040	2.755*		0.080	0.024	1.707	0.000	0.000	-0.009	-0.005	-0.004	-0.309	0.095	0.072	2.824*	0.084	0.026	1.059	-0.009	-0.007	-0.303	-0.012	-0.009	-0.391
종교	0.050	0.045	3.331**		0.055	0.049	3.798***	0.057	0.003	2.710**	0.034	0.080	2.497**	0.056	0.045	1.797	0.064	0.052	2.193*	0.023	0.019	0.848	0.028	0.023	1.028
Step 2																									
근로 상태					0.016	0.014	0.984	0.014	0.012	0.885	0.017	0.015	1.132				-0.136	-0.102	-3.763***				-0.131	-0.098	-3.927***
건강 상태					0.047	0.072	5.072***	0.013	0.021	1.565	0.012	0.018	1.341				0.029	0.046	1.654				-0.028	-0.045	-1.727
주거 수준					0.013	0.020	1.519	0.012	0.019	1.548	0.013	0.020	1.693				0.002	0.004	0.154				-0.003	-0.005	-0.251
경제 수준					0.249	0.251	19.067***	0.185	0.187	14.899***	0.184	0.186	14.938***				0.279	0.295	12.286***				0.196	0.208	9.149***
Step 3																									
우울감																									
자이존중감																									
Step 4																									
신뢰																									
상호호혜성																									
통계량	R ² =0.037, adjR ² =0.036, F=42.216***		R ² =0.106, adjR ² =0.105, F=72.283***		R ² =0.215, adjR ² =0.213, F=136.125***		R ² =0.231, adjR ² =0.230, F=126.812***		R ² =0.032, adjR ² =0.029, F=10.817***		R ² =0.135, adjR ² =0.131, F=28.135***		R ² =0.267, adjR ² =0.262, F=53.443***		R ² =0.270, adjR ² =0.264, F=45.812***										

*p<0.05, **p<0.01, ***p<0.001

〈표 9〉 2012년 정서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저소득층 가구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B	t	B	t	B	t	B	t	
Step 1																
성별	0.019	1.649	0.019	1.759	0.011	1.091	0.006	0.007	0.605	-0.052	-1.965	-0.043	-0.041	-1.704	-0.051	-2.194*
연령	-0.001	-2.083*	-0.002	-3.761***	-0.003	-4.826***	-0.002	-0.071	-4.523***	-0.006	-0.174	-0.006	-0.174	-5.516***	-0.007	-6.191***
교육 수준	0.067	13.571***	0.040	8.271***	0.028	6.110***	0.025	0.077	5.374***	0.044	1.116	0.026	0.068	2.214*	0.016	1.394
배우자 유무	0.048	3.166**	0.011	0.817	-0.023	-1.852	-0.023	-0.022	-1.901	0.157	0.147	0.056	0.053	2.245*	0.057	1.528
종교	0.057	5.033***	0.055	5.137***	0.032	3.169**	0.027	0.029	2.688*	0.064	0.062	0.054	0.052	2.356*	0.032	1.456
Step 2																
근로 상태			-0.011	-0.011	-0.021	-0.022	-1.858	-0.022	-0.025	-1.911		-0.022	-0.020	-0.821	-0.037	-0.033
건강 상태			0.063	0.111	8.687***	0.025	0.044	3.551***	0.021	0.086	2.911**	0.072	0.127	5.285***	0.031	0.054
주거 수준			0.084	0.053	4.583***	0.033	0.052	4.766***	0.033	0.052	4.767***	0.033	0.060	2.751**	0.027	0.049
경제 수준			0.290	0.283	23.966***	0.190	0.234	20.523***	0.189	0.233	20.523***	0.264	0.346	15.145***	0.218	12.178***
Step 3																
우울감					-0.184	-0.681	-25.882***	-0.169	-6.626	-23.269***						
자이존중감					0.225	0.684	25.773***	0.211	6.612	23.926***						
Step 4																
신뢰								0.052	0.057	5.043***						
상호호혜성								0.055	0.076	6.799***						
통계량	R ² =0.043, adjR ² =0.042, F=59.631***	R ² =0.142, adjR ² =0.141, F=123.172***	R ² =0.223, adjR ² =0.222, F=174.603***	R ² =0.233, adjR ² =0.231, F=155.728***	R ² =0.051, adjR ² =0.048, F=18.569***	R ² =0.195, adjR ² =0.191, F=46.222***	R ² =0.273, adjR ² =0.268, F=58.461***	R ² =0.295, adjR ² =0.290, F=55.121***								

*p<0.05, **p<0.01, ***p<0.001

3) 총체적 삶의 질

(1) 2006년

일반 가구의 2006년 최종 모형(model 4)은 45.3%(adj $R^2=0.45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53$, $p<0.001$)이,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49$, $p<0.001$), 주거 수준($\beta=0.049$, $p<0.001$), 생활 수준($\beta=0.237$,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우울감($\beta=0.194$, $p<0.001$)과 자아 존중감($\beta=0.337$,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상호호혜성($\beta=0.137$, $p<0.001$)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06년 최종 모형(model 4)은 49.3%(adj $R^2=0.49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beta=0.033$, $p<0.05$),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89$, $p<0.001$), 주거 수준($\beta=0.117$, $p<0.001$), 생활 수준($\beta=0.267$,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우울감($\beta=0.139$, $p<0.001$)과 자아 존중감($\beta=0.440$,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53$, $p<0.001$), 상호호혜성($\beta=0.097$, $p<0.001$)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환경 변수 중 근로 상태($\beta=-0.039$, $p<0.05$)가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2) 2009년

일반 가구의 2009년 최종 모형(model 4)은 21.4%(adj $R^2=0.21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53$, $p<0.01$)이,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59$, $p<0.001$), 주거 수준($\beta=0.051$, $p<0.001$), 생활 수준($\beta=0.252$,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424$,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70$, $p<0.001$), 상호호혜성($\beta=0.042$, $p<0.001$)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404$, $p<0.001$)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09년 최종 모형(model 4)은 21.9%(adj $R^2=0.21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60$, $p<0.05$), 주거 수준($\beta=0.057$, $p<0.05$), 생활 수준($\beta=0.253$, $p<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398$, $p<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65$, $p<0.001$)가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116$, $p<0.001$)이,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322$,

$p < 0.001$ 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3) 2012년

일반 가구의 2012년 최종 모형(model 4)은 23.2%(adj $R^2=0.23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beta=0.081$, $p < 0.001$)이,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057$, $p < 0.01$), 주거 수준($\beta=0.075$, $p < 0.001$), 경제 수준($\beta=0.292$, $p < 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482$, $p < 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073$, $p < 0.001$), 상호호혜성($\beta=0.045$, $p < 0.001$)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0.032$, $p < 0.01$), 연령($\beta=-0.074$, $p < 0.001$)이,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481$, $p < 0.001$)이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2012년 최종 모형(model 4)은 22.4%(adj $R^2=0.22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beta=0.106$, $p < 0.001$), 주거 수준($\beta=0.055$, $p < 0.05$), 생활 수준($\beta=0.288$, $p < 0.001$)이, 심리 자본 중에서는 자아 존중감($\beta=0.334$, $p < 0.001$)이, 사회 자본 중에서는 신뢰($\beta=0.122$, $p < 0.001$)가 총체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156$, $p < 0.001$)이, 심리 자본 중 우울감($\beta=-0.235$, $p < 0.001$)이 물리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1〉 2009년 총체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일반 가구												저소득층 가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Step 1																									
성별	0.017	0.011	0.814	0.020	0.013	1.010	0.008	0.005	0.421	0.030	0.002	0.134	0.012	0.007	0.261	0.011	0.007	0.265	-0.009	-0.005	-0.229	-0.006	-0.004	-0.154	
연령	-0.001	-0.010	-0.553	-0.002	-0.039	-2.154*	-0.002	-0.029	-1.680	-0.002	-0.027	-1.562	-0.007	-0.129	-3.657***	-0.006	-0.116	-3.267**	-0.006	-0.120	-3.514***	-0.006	-0.116	-3.386**	
교육 수준	0.099	0.188	10.983***	0.053	0.098	6.063***	0.055	0.064	4.116***	0.028	0.053	3.387**	0.074	0.121	3.434**	0.054	0.088	2.630**	0.036	0.058	1.810	0.033	0.054	1.679	
배우자 유무	0.112	0.064	4.454***	0.076	0.043	3.192**	0.043	0.024	1.864	0.038	0.022	1.680	0.102	0.058	2.248*	0.015	0.009	0.350	-0.027	-0.016	-0.660	-0.032	-0.018	-0.765	
종교	0.081	0.020	1.485	0.040	0.026	2.017*	0.020	0.013	1.058	0.017	0.011	0.910	0.040	0.024	0.959	0.049	0.029	1.246	0.007	0.004	0.192	0.016	0.009	0.414	
Step 2																									
근로 상태				0.037	0.023	1.641	0.034	0.021	1.586	0.037	0.023	1.712				-0.085	-0.017	-1.756	-0.080	-0.044	-1.724	-0.079	-0.044	-1.710	
건강 상태				0.090	0.101	7.231***	0.054	0.061	4.464***	0.052	0.059	4.342***				0.103	0.121	4.425***	0.047	0.055	2.057*	0.051	0.060	2.245*	
주거 수준				0.044	0.052	4.032***	0.043	0.050	4.103***	0.044	0.051	4.193***				0.059	0.068	2.912**	0.053	0.062	2.754**	0.050	0.057	2.554*	
생활 수준				0.413	0.303	23.460***	0.345	0.252	20.012***	0.344	0.252	19.996***				0.405	0.318	13.559***	0.323	0.254	10.850***	0.323	0.253	10.847***	
Step 3																									
우울감							-0.253	-0.441	-20.411***		-0.232	-0.404	-18.200***												
자이존중감							0.302	0.449	20.693***		0.284	0.424	19.201***												
Step 4																									
신뢰										0.107	0.070	5.538***													
상호호혜성										0.042	0.042	3.344**													
통계량	R ² =0.034, adjR ² =0.034, F=39.095***	R ² =0.142, adjR ² =0.141, F=100.974***	R ² =0.209, adjR ² =0.207, F=131.587***	R ² =0.216, adjR ² =0.214, F=115.953***	R ² =0.017, adjR ² =0.014, F=5.488***	R ² =0.149, adjR ² =0.144, F=31.483***	R ² =0.221, adjR ² =0.216, F=41.714***	R ² =0.225, adjR ² =0.219, F=36.074***																	

*p<0.05, **p<0.01, ***p<0.001

〈표 12〉 2012년 총체적 삶의 질 영향요인

요인	기본 기구												저소득층 기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Step 1																										
성별	-0.028	-0.023	-1.843	-0.029	-0.024	-2.067*	-0.036	-0.029	-2.599**	-0.040	-0.032	-2.892**	0.006	0.004	0.159	0.014	0.010	0.439	0.006	0.005	0.197	-9.01E-5	0.000	-0.003	-4.989***	
연령	-0.002	-0.005	-2.133*	-0.003	-0.071	-4.359***	-0.004	-0.081	-5.116***	-0.003	-0.074	-4.686***	-0.006	-0.143	-4.369***	-0.007	-0.158	-4.946***	-0.008	-0.169	-5.346***	-0.007	-0.156	-4.989***		
교육 수준	0.094	0.221	14.277***	0.050	0.117	7.959***	0.088	0.090	6.283***	0.084	0.081	5.613***	0.088	0.076	2.291*	0.011	0.023	0.727	0.002	0.003	0.113	0.001	0.001	0.042		
배우자 유무	0.063	0.046	3.533***	0.014	0.010	0.856	-0.021	-0.015	-1.279	-0.022	-0.016	-1.353	0.117	0.084	3.359**	-0.011	-0.008	-0.339	-0.029	-0.021	-0.901	-0.028	-0.020	-0.860		
종교	0.041	0.032	2.770**	0.040	0.033	2.882**	0.017	0.014	1.288	0.013	0.011	0.966	0.093	0.069	2.835*	0.082	0.060	2.683**	0.061	0.045	2.051*	0.051	0.038	1.739		
Step 2																										
근로 상태				0.018	0.014	1.172	0.008	0.006	0.527	0.006	0.006	0.535				-0.004	-0.003	-0.115	-0.018	-0.012	-0.522	-0.018	-0.015	-0.536		
건강 상태				0.088	0.117	9.330***	0.050	0.066	5.291***	0.043	0.057	4.605***				0.117	0.159	6.522***	0.079	0.107	4.357***	0.078	0.106	2.556***		
주거 수준				0.064	0.076	6.772***	0.064	0.076	6.918***	0.064	0.075	6.893***				0.049	0.069	3.087**	0.043	0.060	2.777*	0.039	0.055	2.556*		
생활 수준				0.358	0.332	28.755***	0.317	0.294	25.861***	0.315	0.292	25.755***				0.335	0.335	14.459***	0.282	0.282	12.121***	0.288	0.288	12.463***		
Step 3																										
우울감							-0.190	-0.528	-20.089***																	
자이존중감							0.224	0.513	19.376***																	
Step 4																										
신뢰																										
상호호혜성																										
통계량	R ² =0.042, adjR ² =0.041, F=58.239***	R ² =0.178, adjR ² =0.177, F=161.229***	R ² =0.226, adjR ² =0.225, F=177.262***	R ² =0.233, adjR ² =0.232, F=156.527***	R ² =0.030, adjR ² =0.027, F=10.554***	R ² =0.175, adjR ² =0.171, F=40.521***	R ² =0.215, adjR ² =0.210, F=42.641***	R ² =0.230, adjR ² =0.224, F=39.227***																		

*p<0.05, **p<0.01, ***p<0.001

V. 결론

본 연구는 시민의 물리적·정서적·총체적 삶의 질의 선행요인을 규명하였다. 특히,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있어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선행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집단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질 수준 및 선행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3개년도 (2006년, 2009년, 2012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물리적 환경, 심리 자본, 사회 자본, 결과 요인으로서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토대로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차이 검증을 위한 t-test, 가설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수준 등에서 일반 가구 구성원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감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의 우울감 수준이 일반 가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 3가지 차원의 삶의 질 수준 모두 일반 가구 구성원이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 및 복지 정책의 수립에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 하는 것이다.

둘째, 위계적 회귀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연도별, 집단별로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의 경우 물리적 삶의 질과 총체적 삶의 질에서 3개년도 모두에 걸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물리적 환경 중에서는 생활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주거상태는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물리적 환경이 저소득층보다 일반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 보다는 일반 가구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리적·정서적·총체적 삶의 질 차원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자본의 경우 2006년, 2009년, 2012년 결과를 종합할 때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정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사회적 형평, 인본주의 등을 지향하는 후기 신공공관리론(Post-NPM)으로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Park & Joaquin, 2012).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있어 남성의 삶의 질 저하 및 고 연령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 국가의 연간 노동 시간 순위에서 매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 관리 및 인사 관리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 및 근로 생활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일과 삶 균형(WLB)” 정책이 기존에는 사회적 약자로 이해되었던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남성을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성별 맞춤형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조직 내에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 및 구조 측면에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고 연령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1위라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제력 확보 방안 등 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버 뉴딜 정책 개발 등 인사 및 고용 정책, 경제 정책 측면에서의 개혁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의 경우 여전히 물리적 삶의 질과 총체적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저소득층보다 일반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점이 확인된바, 현재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물리적 환경의 경우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및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준거 집단(Reference Group)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주거, 보건 등 다양한 차원의 실제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 자본, 심리 자본 확산 정책과 연계시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자본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단위에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및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민 복지 공동체 운영 등 인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사회 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호혜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를 기초로 진정한 신뢰 사회를 구현하고, 나아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 및 사회자본 확대를 위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디자이너 제도(가칭)” 와 같이 국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개·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국민 맞춤형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심리 자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긍정 심리자본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주관의 멘토링, 코칭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득 양극화 문제, 각종 범죄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와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의 적합성,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행복 역량을 확산시키고 부정적 심리, 사회 탈진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행복은 경제적 요소 혹은 비경제적 요소 등 어느 한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자본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 심리자본을 개발하는 등 경제적·비경제적 요소를 조화롭게 관리해야만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일반 가구 구성원과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있어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간의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삶의 질의 선행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혹은 물리적 환경, 심리 자본, 사회 자본 요인 중 한 가지 특성만을 다루고, 삶의 질 개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물질적 속성, 혹은 심리적 속성 중 하나의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연구 모형의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삶의 질 선행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물리적 환경, 심리 자본, 사회 자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삶의 질 개념을 물리적·정서적·총체적 삶의 질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도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삶의 질 영향 요인 규명에 있어 제도적 요인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내지 못했다. 특히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 이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탐색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구조 규명,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사회 정책 및 관리 변수들을 담아 낼 수 있도록 1차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자료 분석에 있어 양적 연구 방법론만을 활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질적 연구(Focus Group Interview, In-Depth Qualitative Studies 등), 비교연구, 메타연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론들을 병행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랑·문상호. (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98.
- 고명철. (2013). 삶의 질과 공공관리적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미국 도버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205-232.
-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 (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김규수·고경미·김경숙. (2014). 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만족도 관련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251-268.
- 김도연. (2001). 지방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2), 81-96.
- 김미령. (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32(1), 145-161.
- 김혜령. (2012). 일 도시지역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1), 223-236.
- 이미림·박춘숙. (2013).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마음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 67-88.
- 이영균·김동균.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인숙. (2013). 한부모 여성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양부모 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4), 199-227.
-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전상남·신학진. (2014). 사회적 지지가 무배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4(1), 87-101.
- 한석태. (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 Free Press.
- Ay-Woan, P., Sarah, C. P., Lynn, C., Tsy-Jang, C., & Ping-Chuan, H., (2006). Quality of life in depression: Predictive models. Quality of Life Research, 15(1), 39-48.
- Col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 Sociology, 94, 95-120.
- Col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ulter, J. (1990). Ethnomethodological sociology. Edward Elgar Pub.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pp. 89-125). Academic Press.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 George, L. K., & Bearon, L. B. (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Meaning and measurement. Human Sciences Press.
- Hachey, R., & Mercier, C. (1993). The impact of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quality of life of chronic mental patients.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12(2), 1-26.
- Han, S., Kim, H., Lee, E-S., & Lee, H. S. (2013). The contextual and compositional associations of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happiness: A multilevel analysis from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1183-1200.
- Helliwell, J., Huang, H., & Wang, S. (2014).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145-162.
- Hewitt, J. P. (1998). The myth of self-esteem: Finding happiness and solving problems in America. St Martin's Press.
- Judd, L. L., Paulus, M., Akiskal, H. S., Rapaport, M. H., & Kunovan, J. L. (1997). The role of subsyndromal depressive symptoms in unipolar major depression. In L.L. Judd., B. Saletu., V. Filip (Eds.). Basic and clinical science of mental and addictive disorders (pp. 6-10). Bibliotheca Psychiatrica.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 107(38), 16489-16493.
- Lehman, A. F. (1983). the effects of psychiatric symptoms o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among the chronic mentally ill.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2), 143-151.
- Leung, A., Kier, C., Fung. T., Fung. L., & Sproule, R. (2011).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2011).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443-462.
- Luthans, F. (2001). The case for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Current Issues in Management, 1, 10-21.

- Luthans, F., & Youssef, C. M. (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3), 321-349.
- Maddox, G. L., & Douglass, E. B. (1974). Ag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A longitudinal analysis of social,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indicator. *Journal of Gerontology*, 29(5), 555-563.
- Maslow, A. (1954). *Motivational and Personality*, Harper & Row.
- McDowell, I., & Newell, C. (Eds). (1987).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University Press.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Park, S. M. (2010). The effects of personnel reform systems on Georgia state Employees' attitudes. *Public Management Review*, 12(3), 403-437.
- Park, S. M., & Joaquin, M. E. (2012). Of alternating waves and shifting shores: The configuration of reform values in the US federal bureaucrac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8(3), 514-536.
- Park, S. M., & Rainey, H. G. (2008). Leadership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US federal agencies.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109-142.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11.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Seligman, M. E. P. (1999). Positive social science.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3), 181-182.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91.

기고일 : 2014. 11. 7.

심사일 : 2014. 11. 24.

확정일 : 2014. 12. 30.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ume 23 Number 4

2014

CONTENTS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Quality of Life in Korea
: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Ordinary-Income of the Households
..... Seona Kim & Sung Mi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be the main predictors that might affect quality of life (QoL) in Korea. Especially, Drawing upon a social capital theory, this study explores the importance of physical, emotional,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aspects of QoL, which is operationalized as the level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one's life. This study is to enhance an internal, external, and construct validity through designing a sophisticated research framework, as well as adopting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factors, social capital elements as well as conside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conditions. To test and confirm a set of research hypotheses on QoL, the Panel data of the 2012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was utilized in the empirical analysis, which contains two different methodological procedures. First, we explored and estimated the latent constructs of different types of quality of life using EFA. Seco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antecedents and QoL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pecifically, from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human capital perspectives,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olicy lessons to boost the level of citizens' QoL and happiness are offered in the final section.

Key words: Quality of Life, Social Capital theory, Physical Conditions,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Capital